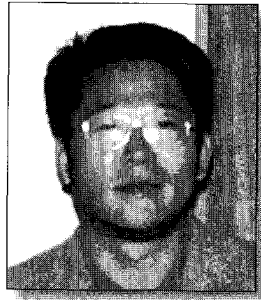


# 녹용성장과 자육 생산에 만전 기해야

- 사슴들의 영양 균형 위해 미량광물질 급여도 고려해볼만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사슴가격 하락과 녹용 판매 부진은 지난해 말 사슴의 투매현상을 빚어냈다. 그 와중에서 암사슴 가격은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암사슴은 환축이 발생되면 치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도살되는 것이 상례였다. 하기사 2~3회 치료하면 사슴값과 진료비가 별반 차이가 없었으니 시원찮은 것은 팔아버리고 거기에 돈을 조금 보태서 건강한 암사슴을 새로 사들이는 것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새끼사슴 중 암컷의 팔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은 양육인 자체의 대책이 실통치 못하고 정책 당국의 무성의가 어루러져 발생한 것으로 결국

해외 양육 국가의 국내시장 잠식을 유도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사슴값과 녹용값이 다소간 오르고 있으며 특히 수사슴 가격 상승이 활발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지난해 사슴값이 싸다보니 먹이대금 부담이 커 농가에서는 농후부산물과 부존사료에 눈을 돌려야만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콩과식물의 농후부산물, 쌀겨, 콩비지, 도토리묵 비지, 사과주스 생산 후 나오는 박 등이 사슴의 겨울 먹이로 대단히 유용하게 제공되었다. 이들은 사슴의 배를 채워주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영양소면에서는 결핍되는 것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부존사료는 사슴에게 주사료로 채택되기보다는 보조사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존 사료를 주사료로 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영양소가 부족한 부존사료를 주사료로 먹인 암사슴들에서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때가 많다. 즉 파이프나 철망을 핥는 사슴, 다른 사슴의 털을 뽑아먹는 사슴, 다른 사슴을 신경질적으로 공격하는 사슴, 허약해진 사슴 등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슴은 분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아니 과잉 비육된 암사슴보다 마른 사슴이 분만은 잘하는 편이지만 태어난 새끼사슴이 허약하여 원인불명으로 죽어가거나 설사가 발생하여 설사 치료제를 써도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현상은 영양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바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암사슴에게 배합사료를 증량 공급해 주면서 동시에 비타민 A, D, E와 코발트, 동, 몰리브덴, 마그네슘, 망간 등 미량 광물질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야만 한다. 더 늦으면 위의 것들을 급여한 다해도 효과는 반감되고 비용지출은 증가될 뿐이다.

수사슴에게도 배합사료의 급여를 증가시켜야 하고 정력적인 녹용 생산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콩을 먹이되 열처리하거나 삶아서 공급하고, 대두박도 추가로 급여해야 할 것이다. 단지 유념해야 할 것은 신장상태가 좋지 않은 사슴에게는 콩의 급여가 단백질 대사의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사슴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 요석증 및 포피염이 발생되기도 한다. 녹사료로서 재배된 호밀이나 라이그라스는 옷자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베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찍부터 베어 먹이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월은 나이 먹은 레드디어와 엘크 수사슴이 낙각하는 시기인데 낙각된 사슴을 넓은 사육장에서 합사하려면 먼저 낙각된 수사슴이 있는 곳으로 새로 낙각이 된 수사슴을 이동



▲ 암사슴의 수태여부를 확인하는 필자

시켜 합사해야 한다. 합사시점(이동시점)은 한쪽이라도 낙각이 되면 즉시 합사해야만 한다. 독방에서 생활하던 사슴은 다른 사슴이 새로 들어오면 투쟁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 공격을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나머지 한쪽도 낙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공격방법은 마치 암사슴들이 투쟁하듯 앞발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낙각 1주일 이내에는 새로 올라온 녹용이 약간의 상처를 입어도 무방하나 낙각 된지 15일 이상 된 녹용이 상처를 입으면 녹용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녹용 형태가 변하거나 녹용이 기형으로 자랄 수도 있으니 합사하는데 주의해야만 한다.

잇지 말아야 할 것은 합사는 낙각된 것들끼리만 해야지 낙각이 안된 수사슴과 합사하면 아무리 사납고 덩치가 큰사슴이라 해도 낙각이 안된 수사슴에게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낙각된 사슴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낙각된 사슴이 피하거나 혹은 싸우는 과정에서 녹용을 다치거나, 발을 다치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낙각된 수사슴은 무장해제 상태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늦여름이나 가을에는 나이 먹은 수사슴이 먼저 발정이 와서 젊은 수사슴을 공격하여 젊은 사슴들이 통상적으로 공격을 당하나 낙각이

된 사슴은 전세가 역전되어 젊은 수사슴에게 일방적으로 공격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낙각이 되어 합사하는 수사슴에게는 배합사료 급여량을 평소보다 3~5% 늘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합사에서 오는 힘의 재균형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에너지의 보충에 필요한 양이다.

수사슴은 낙각후 15~30일을 전후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식욕부진과 비뇨기 질환은 성호르몬 불균형에서 유래된다. 이는 녹용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시기의 수사슴에게서 원인 모를 식욕부진이나 배뇨장애, 배변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위의 질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2001년에 출생하여 일찍 첫뿔이 성장되어 있는 수사슴의 녹용 절각은 녹용의 끝부분이 약간 뾰족해지려는 시점이 무난하겠고 이때 각관 주위에 돌은 크고 작은 녹용 돌기는 철저히 제거해야 각관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후일에 손가락 굵기의 녹용이 자라나 미관상으로도 불량하며 각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생애 최초의 녹용을 절단하는 수사슴은 과도한 채혈을 금하고 녹용절단은 가능한 한 지혈제를 바르지 않고 지혈하면 각관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시도해 볼만하다.

## 2월의 진료

필자에게는 12월이나 1월보다는 사슴 질병에 대한 문의가 조금은 증가하였지만 진료는 줄어들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소화기 및 호흡기 질병, 그리고 탈모 또는 식모증이 주를 이뤘고 발굽질병이나 비뇨기 질병은 큰 차이 없이 여전하였다. 그에 반해 비타민이나 광물질 부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성 질병과 사료조의 길이가 짧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허약한 개체가 종종 발견되었고, 발굽의 질병은 대부분 재발된 것으로 새로 발생한 것은 드물었다. 그밖에 급속성 철사를 먹어 발생한 복막염과 심낭염도 있었고 요석증과 포피염이 중복되어 발병된 것도 있었다.

그중 하나인 요석증과 포피염이 중복되어 발병된 엘크 수사슴의 진료과정을 소개해본다. 충청도의 중앙지역인 G시의 N씨가 사육하는 엘크 수사슴은 키가 큰 편이었고 살도 그런 대로 쪼 있는 상태였으나 수월 전부터 배합사료는 전혀 먹지 않고 조사료로 주어지는 참나무 잎 건초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후 왕진하였다. N씨는 꽤 여러해 동안 사슴을 사육해

온 분으로 꽃사슴과 엘크를 사육중이었다. 목장에 도착하여 사육환경을 살펴보니 다른 양록농가와 하등 차이가 없고 상품성이 없는 밤을 먹이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밤과 본 질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5세된 엘크 수사슴은 외견상 피로해 보였고 거동도 활발하지 않았으며 대변 배설량도 소량인데다가, 먹이통에 주어진 배합사료와 밤은 전혀 입도 대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호흡이 약간 빠르고 배도 약간 부른 듯 했으며 음낭도 상당히 달라붙어 있었고 하복부에는 물기가 전혀 없이 바짝 말라 있었으며 포피 주



▲ 질병치료를 위한 마취는 사슴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적량을 사용해야 마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위에는 약간의 혈액이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땅바닥에는 오줌을 눈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신장질환에서 유래

되어 발생된 요석증이나 포피염의 악화 상태라고 판단하고 신장질환을 유념한 채 마취제는 정상용량의 65%정도로 마취했고 마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포피를 살펴보니 출혈이 약간 보이고 포피는 치유와 악화의 과정을 여러번 반복한 모양으로 거의 막혀있는 상태였다. 포피 주위에는 요석이 털에 달라붙어 작은 좁쌀크기로 매달려 있었다. 수술대상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수술시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머리와 사지를 결박하고 포피 주위를 소독한 후 바닥에는 움직일 때 발생될 수 있는 오염 방지를 위해 사료포대를 깔고 즉시 포피 절개에 들어갔다. 포피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났고 요석과 염증으로 가득차 있어 그것을 제거하는 것만도 여간 일이 아니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사슴의 요도에는 요석이 딱 차있어 써그럭 써그럭 소리가 날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혀 있어 그로 인해 수사슴의 성기가 7~9cm 가량이 완전히 썩어버려 수사슴의 성기를 절단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수사슴의 성기를 절단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절단수술 과정 중 요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정이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염증 방지를 위한 연고를 충분히 투여하고, 그 후부터는 요석 제거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순서다. 수술 후 2일부터는 배합사료

와 상수리 잎을 먹기 시작했고 그후 2차례 추가치료를 하였다. 현재까지 상태는 양호하나 금년도 녹용생산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금년 3월20일과 4월17일에 양록 농가를 모시고 사슴 질병발견 요령, 사슴 마취 요령과 마취사고 방지요령, 난산 등의 치료요령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양록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려드릴 말씀은 이번 행사에는 사슴 진료에 관심이 있으신 수의사 분들도 환영하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부 수의사 분들께서 이번 행사가 양록 농가로 하여금 진료를 유도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줄 압니다만 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록인과 수의사가 공동 번영하는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므로 염려하는 마음을 성원으로 늘려주시고 양록인과 수의사가 공동 번영하는데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필자에게 전언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록인과 수의사가 공영 공생하는 행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필자 연락처 011-423-5297〉